

차례

- 이만제단 시대 5부
- 三. 승리자, 동방의인, 감람나무는 같은 한 분이다
- 제9편
- 이만제단시대 6부
- 一. 피는 곧 생명이다.(창9:4)

애급 바로왕 때 압제받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는 애급왕 바로를 굴복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이끌고 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같은 만나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간 당대의 구세주가 바로 모세이다.

그런데 모세 같은 선지자라면 영적인 모세를 말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모세는 영적 바로왕인 마귀대장을 굴복·소탕시켜서 그 사망의 신에게 잡혀 죽어 가던 전 인류를 건져내어 영적 가나안 복지로 감로를 배불리 먹여주면서 이끌고 가는 주인공이라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모세 같은 선지자요,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성경 신구약에서는 이 모세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중추 골격과 같이 중요하게 적어놓고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성경을 소개하겠다. 옛날 육적인 모세 때에 역사를 거울삼아 영적 모세 때에는 절대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기를 간절히 내용으로 경고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다.

“오늘날 만일 너희가 그의 소리를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쾌(頑擘)케 하기를 옛적에 노하심을 격동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수탐(搜探)하여 시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함을 보았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라대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못하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히 3:7-11)”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25회)

## 전도관 제8편

### 이만제단 시대 제5부



이만제단 내부 예배보는 광경

가 먼 사람이다.

더욱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대로 예수는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는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하고 하나님께 송사할 사람은 모세라고 하면서 이 모세는 너희의 바라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분명 모세 같은 선지자는 구세주이며 아울러 예수는 모세 같은 선지자일 수가 없음을 성경적으로 증명되었으니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인류는 이와 같은 모세같은 선지자를 기다려 왔던 것이다. 더욱이 모세같은 선지자가 예수라면 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옛날 육적인 모세 때와 같은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할 리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창세기 49장 16절에는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구세주의 심판권을 단지파에게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세주는 유대지파에서 예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파에서 구세주가 출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단에게 주신 심판권이 모세에게 간 것이면 분명 모세는 인류의 구세주가 틀림이 없다. 그리고 단지파인 한국인으로 출현하신 조희성님은 분명 모세 같은 역할을 하시고 있으니 그분은 분명 인류의 구세주이심이 분명하다.

은 인류는 이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분이 구세주요, 정도령이요, 생미륵불이신 것이다. 하락요람에 있는 말을 소개하고 이 장을 끝맺겠다.

死未生初未生理 不死永生地仙國  
시말생초말세리 불사영생지선국

四夷屈膝此今日 十勝大王正道令  
사이굴복차금일 십승대왕정도령

彌彌世尊十大王 世人  
미륵세존십대왕 세인

苦待他人也.....河洛要覽  
고대차인야 하락요람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끝이 나고 영생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는 것이 말세의 이치다. 불로영생하는 지상선국이 건설되니 사망 오랑캐가 굴복함도 이 날이로다. 이러한 천지공사를 완성할 주인공인 십승대왕이 정도령이요, 생미륵불이시니 세상사람들이 이 한 분을 기다려나니라.”

이분이 승리자 구세주 조희성님이시고 이분을 출현시키시기 위하여 구세주의 엄마인 박태선 영모님은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의 역할을 계속 해오신 것이다.

### 1) 우주보다 더 큰 것

하루는 박태선님은 단에 서서자마자 다음 주일에는 “우주팽이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겨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다들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음 주가 되기를 기다렸다.

기다리던 그날이 되어 단에 서신 박태선님은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읽어주셨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우주팽이 만한 금팽이를 주면 자기 목숨과 바꿀 사람이 있었어요?” 하고 질문하는 것이었다. 다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니 “우주 만한 황금팽이를 가지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건데 한번 자기 생명과 바꾸어 볼 만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신다. 다들 “아닙니다”라고 함창을 하며 대답을 하니 박태선님은 웃으시면서 “우주팽이 만한 황금이든 금강석을 준다 해도 죽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신다. 그러시면서 “약속대로 오늘 우주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주겠다!”고 하신다. 다들 숨을 죽이고 다음 말씀을 기다린다. 약 2초 정도 침묵이 흘렀다.

“마음문을 여시라요!”라고 하시면서 책대를 광광 한 두 번 치신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주보다 큰 것이예요, 작은 것이예요?”라고 큰 음성으로 질문하신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답변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손에 들려 보낼려고 한다”는 말씀이 떨어지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손뼉을 치기 시작 하였다.\*

## 제 9 편

### 이만제단시대 6부

#### 一. 피는 곧 생명이다.(창9:4)

1956년도의 이만제단시대는 모든 면에서 열기가 용광로같이 끓어 오르던 시절이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연일 단에 서실 때마다 강하게 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가 전도관으로 옮겨졌다고 연일 선포하는 것이었다.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승리자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가 옮겨졌다고 연일 증거하시는 것이었다. (목 2:5참조)

사람의 마음(영, 신)이 바로 서면 악귀나 마귀나 신 따위도 설 땅이 없어진다.

**其神不傷人(기신불상인):** 그 신통력이 사람도 해칠(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본심(양심)이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서고, 우주가 바로 잡히는데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게 무엇이 있었는가.

**非其神不傷人(비기신불상인):** 그 신이 사람에게 해칠 수 없는 것 뿐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聖人亦不傷人(성인역불상인):** 성인 역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성인이라 불리는 위인도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게 된다

**夫兩不相傷(부양불상상):** 대저 양쪽이 서로 해칠(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그 양쪽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세상이 모든 것이 '바른 마음'에 달렸기 때문이다

**故德交焉(고덕교귀인):** 고로 덕이 서로 번갈아 돌아가기 때문이다.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항상 머무는데 그 무슨 성인이나, 신이니 하는 따위가 영향을 미치고 필요하겠는가.\*

김주호 기자

귀신이 신통력이 부릴 수 없는 것은

##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력)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治大國若烹小鮮

## 치대국약팽소선

###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물고기를 삶듯 해야 한다

#### 도덕경 60장 해설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돌아가는 정치상황을 보면서 각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때 맞추어 시의적절한 도덕경 내용이 현실 정치 판도와 맞물려 실리게 된다. 옛 도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요즘의 정치행태를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다. 때가 되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철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선심성 공약이 어제와 오늘 의 일만인 것이다. 번번이 반복되는 선거 때 마

다 이번에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온 나라의 선거의 열기에 폭 빠져든다. 선거 전에는 온갖 달콤한 공약을 내세워 민심에 호소하며 표심을 애걸하는 위인들이 소위 정치인들이다. 간과 쓸개를 다 빼 줄 정도로 앞드러질하고, 또 곤궁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소외받은 직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들어준다. 그러면서 잘못된 제도와 법을 개선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두 손 꼭 잡아 힘주어 말한다. 혹여 이번에는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각자가 해결되길 바라는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을 향하여 한 표를 기꺼이 행사한다. 이러한 달콤한 선심성 공약은 방송매체나 언론 보도기관을 통해 온 나라에 열렬히 회자된다. 그런데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정치는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또한 그것이 항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작금의 세상은 이미 도(道)와 덕(德)이 땅에 떨어진 상태다. 쉽게 말해서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귀신 세상이 되어버렸다. 인간의 순수의식(양심)과 도덕이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인과 집단의 사리사욕이 앞서는 죄악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귀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권력을 잡아도 이미 경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부정과 거짓이 포장되어 왜곡 될 수밖에 없다. 누가 어느 정당이 권력을 쥐는가에 따라 법과 제도는 손바닥 뒤집듯이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다. 마치 생선을 삶아 이리 저리 자꾸 뒤집으면 그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듯, 정치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바른 정치가 된지 현실 정치를 직시하면 이와 같이 이미 그 답은 나와 있다.

그러므로 누구를 뽑을까, 어느 정당을 잘 선택할까가 관건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생각과 방안으로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정치와 세태는 바뀌기 어렵다. 문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일 이

